

“예금고객 잡자”…은행권 연말 특판상품 러시

은행권이 연말을 앞두고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특판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예금 만기 도래와 금융채 금리 상승, 증시로의 일부 자금 이동 등 복합적인 이유가 겹치면서 방어에 나선 것이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은 판매금액에 따라 최고 연 3% 금리를 제공하는 ‘2025-2차 공동구매 정기예금’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4일 출시한 1차 상품이 호응을 얻으며 이달 5일 판매를 종료, 고객 성원에 힘입어 2차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판매 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구조로, 가입 기간은 3·6·12개월이다. 영업점과 KB스타뱅킹,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총 가입 한도는 3조원으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가입 기간 1년 상품 기

증시 머니부브 막고 만기 도래에 예금 이탈 등 방어

국민·SC제일은행 3%대 재출시…광주·전북은행도

준으로 최종 판매 금액이 1000억원 이하 일 때는 연 2.75%, 1000억원 초과 시에는 연 2.85%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정기예금 신규(정기예체 포함) 이력이 없는 고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 0.15%p의 이벤트 금리가 더해져 최고 3.0%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특별 형태의 ‘e-그린세이브예금’을 출시했다. 기본 금리 2.9%에 마이100통장에서 자금을 이체해 신규로 가입할 시 제공되는 0.1%p 보너스 금리, 은행 첫 거래 고객 우대 0.2%p 등을 충족할 시 최고 3.2%의 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은 최고 3.1%의 금리를 적

용하는 파킹통장 ‘IBK든든한통장’을 선보였다. 기본금리 0.1%에 금여·연금 수급 시 1.5%, 최초 거래나 최근 6개월 예금 거래가 없는 경우 1.5%p의 금리를 추가로 얹어준다.

지방은행도 특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광주은행도 특별 금리를 적용하는 ‘더드림예금’을 내놨다. 만기 6개월 또는 12개월 예금 가입 시 각각 0.82%, 0.67%p의 우대 금리가 적용, 최고 연 2.72% 금리가 적용된다.

또 최근 3개월간 정기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거래 또는 해지 거래가 없는 경우 6개월, 12개월 예금에

상품	기본 금리	<12개월 상품 기준>	
		신규 고객 0.15%p	연 3.0%
KB ‘2차 공동구매 정기예금’	최종 판매금액 1000억원 초과시 2.85%	마이100통장 이체 후 신규 가입 0.1%p 은행 첫 거래 고객 0.2%p	연 3.2%
SC ‘e-그린세이브예금’	2.9%	금여·연금 수급·최초 거래 각 1.5%p	연 3.1%
IBK ‘든든한통장’	0.1%	신규 정기예금 미보유자 0.72%p	연 2.72%
광주은행 ‘더드림예금’	2.05%	마케팅 등의 0.1%p 정기예금 미보유자 0.2%p	연 2.9%
전북은행 ‘JB 웰컴 특판예금’	2.6%		



수시입출식예금은 10월 ~39조3000억 원에서 11월 15조2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고, 정기예금은 4조5000억원 늘었다.

국고체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체 금리가 불안한 것도 한몫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예금 만기와 상당 부분 도래하는 만큼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을 어느 정도 채울 필요가 있다”며 “최근 변동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증시로의 머니부브 등에 따른 수시 예금 이탈에 예금 조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신세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합니다”

(주)광주신세계가 서구청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신세계는 사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무실과 휴게실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부착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혜택은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기부할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달짜리를 10만원 이상부터 지급되며,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달력을 증정한다.

답례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미식 달력을 준비됐다.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병장으로 유명한 ‘넷플릭스’ 특별요리사 안유성 명장의 ‘장수나주곰탕’, ‘들기름메밀면’, ‘다시마 쇠초·김장 세트’, ‘가마솥동’ 밀키트와 대한민국 제16대 제과제빵명장 마옥천 제빵사의 ‘베비에르 마왕파이 3종 세트’, ‘베비에르 딸기·블루베리 파이’ 중에 선택 가능하다.



광주신세계 직원이 한 사무실을 방문해 서구청과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서구청 협약 후 캠페인 독려…세액공제 혜택 등 홍보

안유성 명장 곰탕·베비에르 마왕파이 등 달력을 선정

이외에도 한우와 한돈세트, ‘황송촌’ 양념돼지갈비, ‘운립기’ 김치세트, 사과, 블루베리 등 30여 가지의 다양한 품목이 있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이달 초 광주 서구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신세계는 사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참

송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

광주은행, 디지털예금 ‘333 트리플’ 이벤트

금융상품 7종 대상 고객 참여형 경품 행사

광주은행은 내년 2월까지 Wa뱅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333 트리플’을 통해 대상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 참여형 행사로, Wa뱅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품

가입 개수에 따라 혜택을 확대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Wa뱅크를 통해 대상 금융상품을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리워드 쿠폰 현금 응모권, 커피 쿠폰 등 상품

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벤트 대상 금융상품은 입출금계좌, 원

화 적금, 원화 예금, 외화 적금, 외화 예금, 개인형 IRP, 신용카드 등 총 7종으로, 지난 11월 기준 미보유 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된다.

혜택은 가입 상품 개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 상품 1개 가입 시에는 상품별 3000원 리워드 쿠폰(최대 2만1000원)과 ‘혜택운지’ 입장권이 제공된다. 3개 이상 가입 시에는 100만원 및 20만원 현금 응모권이 지급된다. 이선하 기자 goback@

이마트, 산지 다양화로 물가안정 칠레산 고등어·아일랜드산 소 등

현대차, 세계양궁연맹 파트너십 3년 연장

2028년까지 후원…장애인·실내 양궁월드시리즈까지 확대

이마트는 해외 산지 확대로 수입산 면적리를 보다 저렴하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마트는 처음으로 칠레 바다를 건너온 ‘태평양 참고등어’ 어종을 정식 수입해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한시 판매한다.

칠레산 태평양 간고등어 1순(2마리·850g)은 국산 간고등어(1순·700g) 대비 25% 저렴하고 노르웨이산 간고등어(1순·750g) 대비해서는 50%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이마트는 칠레산 태평양 참고등어를 선제적 도입해 기존 노르웨이 고등어 물량의 절반을 대체할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수입 축산에서도 ‘아일랜드산 소고기’를 신규 발굴했다. 이마트는 출시를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아일랜드산 자유방목 LA 갈비·찜갈비(각 1.5k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만원 할인가에 판매한다.

아일랜드산 소갈비 2종은 자유방목으로 목초를 먹으며 건강하게 자란 소를 선별했으며, 마블링이 촘촘하고 육질이 단단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

현대자동차는 세계양궁연맹과 파트너

양궁장에서 진행되는 종목으로, 일반부터 앤솔리티 선수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국제 대회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프랑스, 미국 등 7개국에서 진행된다.

이올리 현대차는 이번 계약으로 로보티스 후원부문을 주기해 기술 중심 브랜드 전략을 강화한다. 향후 글로벌 대회 종계 등 주

요 접두에서 로보티스 기술과 브랜드 메시지의 시너지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스턴 세계양궁협회 신임 회장은 “현대차와 파트너십은 2016년 이후 양궁

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동력”이라며 “2026년부터 장애인 양궁과 대중 참여 프로그램이 확대 지원되면서 포용성과

엘리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정의선 회장의 비전 아래 추진해온 협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장애인 및 실내 양궁 지원을 통해 스포츠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부문 및 고려

- 시 부문 : 5편(당선작 1편·상금 150만원)
- 동편소설 부문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당선작 1편·상금 200만원)
- 동화 부문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당선작 1편·상금 150만원)
- 평론 부문 (문학·미술·무용·언극 등)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당선작 1편·상금 100만원)

응모요령

- 원고는 A4 용지에 출력
- 응모작은 미별표 순수창작물일 것
- 당선작의 경우 추후 표절 및 동일 작품 복수 응모는 당선을 취소함
- 갈봉투에 응모분야와 작품 편수 기재
- 원고 끝에 이름(필명일 경우 본명 병기)과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 명기할 것
- 접수된 작품은 반불가지 않음
-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된 날로부터 1년간 광남일보에 있음
- 기작은 당선작의 상금 50%를 지급함

접수마감 및 당선작 발표

-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7시까지 도착 작품에 한함
- 2026년 1월 1일자 신년호 지면

접수처 및 문의

-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종충동 695-5) 광남일보 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방문 및 우편접수)
- 문의 (062)370-7090, 7234



광남일보가 한국문학과 지역문화를 이끌면서 미래 K-문학을 선도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예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6 광남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더할 퍼제 있는 신예 작가들의 당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광남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학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단편소설·동화·평론 부문 … 12월 17일(수) 접수 마감